

IMF, 저소득국가들에 대한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5억 SDR의 차입협정을 체결

빈곤감축 및 성장촉진 신탁기금(PRGT)의 수탁자인 국제통화기금(IMF)은 한국은행과 차입협정을 체결했으며, 이를 통해서 한국은 PRGT에 저소득국가들을 위한 새로운 대출 재원으로 최대 5억 SDR(약 미화 7억 7,730만 달러)을 제공할 예정이다.

2011년 1월 7일에 체결된 이 협정은 최근에 개혁된 양허성 차관에 사용할 수 있는 대출 재원을 증가시킴으로써 저소득국가들을 지원하는 IMF의 능력을 확대한다. 상임위원회가 이 개혁을 2009년 7월 9일에 승인한 후에, IMF 총재는 새로운 양자대출재원으로 사용할 108억 SDR과 양허성 차관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양자공여로 2-4억 SDR을 모금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([보도자료 번호: 09/268](#) 참조).